中國語文學 第94輯(2023. 12) 87-113쪽

黃庭堅의 茶詩 연구*

김 예 주**

<目 次>

Ⅰ. 서론
Ⅱ. 황정견의 일생과 차의 관계
Ⅲ. 황정견 차시의 체제
Ⅳ. 황정견 차시의 다양한 내용
Ⅴ. 황정견 차시의 심미적 인생관
Ⅵ. 결론

Ⅰ. 서론

송대는 차와 차문화가 가장 번성한 시대였다. 당시의 인물인 蔡攸는 "차 흥행의 풍조는 唐代에서 시작되어 宋代에서 번성했다."[1]고 말할 정도로 차 생산이 송대에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루었고, 음차의 풍조도 더욱 성행하여 귀족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차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중화되었다. 차문화가 전성기를 맞으면서 차를 매개로 한 문학도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茶詩가 많이 지어져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차시와 차시 작가가 송대에서 나왔다.[2] 유명한 차시 작가로 梅堯臣, 蘇軾, 黃庭堅, 曾幾, 方回, 陸游, 韓淲[3] 등을 들 수 있는데, 그중에서 황정견은 북송 때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47851).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蔡絛, ≪鐵圍山叢談≫권6 : "茶之尙, 蓋自唐人始, 至本朝爲盛."
2) 김성수, 〈南宋의 曾幾 茶詩 考察〉, ≪中國文學≫ 제105집, 2020, 87쪽.
3) 북송 시인 매요신은 68수의 차시를 지었고, 소식은 84수, 황정견은 127수 지

www.kci.go.kr

에 가장 많은 수의 차시를 지었다.

황정견의 차시에 관한 선행연구 상황을 보면, 현재까지 중국에서 석사 학위 세 편이 나오고 일반논문이 10여 편 나왔다. 학위 논문 중 〈從來佳茗似佳人—論黃庭堅茶詩與自我人格的內在契合〉[4]은 황정견의 차시에 그의 독특한 인생관이 반영되어 있음을 밝혔다. 〈蘇軾和黃庭堅茶詩研究〉[5]는 소식과 황정견의 차시를 비교 연구한 것이고, 〈"神與物遊"—黃庭堅詠物詩綜合研究〉[6]는 황정견의 다양한 영물시를 연구하면서 차시에 관한 부분도 일부 연구되었다.

일반논문 또한 황정견의 차시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꾀하였는데, 우선 차시를 통해 당시 사회문화를 분석한 것들이 있었다. 〈從黃庭堅的茶詩中看北宋文化〉[7]는 ≪전송시≫에 실려 있는 황정견 차시를 통해 북송문화를 전개했고, 〈唐宋詠茶詩繁盛的文化背景探析—以黃庭堅茶詩爲例〉[8]에서는 황정견의 영차시를 통해 당송 영차시가 융성하게 된 문화적 배경과 그 원인을 분석했다. 〈黃庭堅與中國茶文化〉[9]는 중국 차문화 속에서 황정견의 지위와 그 영향을 살핀 논문이다. 〈黃庭堅茶詩的文化內涵〉[10]에서는 유·불·도가 융합된 가운데 선종이 가미된 송대의 철학사상이 황정견의 차시에 깊이 침투되어 중국 정신문화의 풍미가 그의 차시에 스며있음을 밝혔다.

황정견의 차시 작품을 해석한 것도 적지 않았는데, 〈黃庭堅與雙井茶〉[11]

었으며, 남송 시인 증기는 58수, 방회는 91수, 육유는 397수, 한표는 132수 지었다.(김예주, 〈宋代 차문화에 대한 미학적 연구—以茶爲詩1)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138집, 2023, 306쪽)

4) 湯平, 〈從來佳茗似佳人—論黃庭堅茶詩與自我人格的內在契合〉, 碩士學位論文, 中南民族大學, 2008.

5) 楊穩, 〈蘇軾和黃庭堅茶詩研究〉, 碩士學位論文, 南昌大學, 2018.

6) 尚麗姝, 〈"神與物遊"—黃庭堅詠物詩綜合研究〉, 碩士學位論文, 安徽大學, 2018.

7) 蘇瓊·景娟, 〈從黃庭堅的茶詩中看北宋文化〉, ≪文學界≫ 第11期, 2012.

8) 竇道陽, 〈唐宋詠茶詩繁盛的文化背景探析—以黃庭堅茶詩爲例〉, ≪茶葉通訊≫ 第1期, 2013.

9) 余悅, 〈黃庭堅與中國茶文化〉, ≪中國書法≫ 第14期, 2016.

10) 張琛, 〈黃庭堅茶詩的文化內涵〉, ≪滄州師範學院學報≫ 第4期, 2017.

www.kci.go.kr

에서는 쌍정차를 제재로 하여 이 차에 대한 황정견의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고, 쌍정차를 빌어 은일의 정감을 드러낸 시인을 연구했다. 〈"原是分寧一茶客"—黃庭堅與他的詠茶作品〉[12]에서는 황정견의 茶詩와 茶詞의 해석을 통해 작가의 茶事 활동과 송대 문인의 생활 상태를 추론했다. 〈黃庭堅的詠茶詩〉[13] 또한 황정견 차시에 대한 해석을 다루었다.

〈黃庭堅詠茶詩的禪茶意境賞析〉과 〈黃庭堅詠茶詩的禪學意蘊〉[14]은 황정견의 차시에 침투된 선종의 심미 意境과 '茶禪一味'를 연구한 것이고, 〈試論黃庭堅詩中的"茶""香"情結〉[15]은 황정견의 차시와 향시를 통해 그의 품위 있는 생활 정경과 유유자적한 인생 태도를 드러냈다. 〈論茶與黃庭堅的人生情懷〉, 〈黃庭堅涉茶詩中的生活雅趣〉와 〈黃庭堅飮茶人生的文學闡釋〉[16]은 황정견의 인생 및 그의 음차 생활에 대한 정감을 분석한 것들이다. 〈黃庭堅筆下的黔州茶道〉[17]에서는 황정견이 黔州에 있을 때 그곳의 名茶 및 음차 생활을 묘사한 것에 대해 다루었다.

국내에서는 황정견의 茶詩에 관한 연구가 아직 없다. 다만 〈山谷 黃庭堅 茶詞의 문학적 접근〉[18]에서 황정견의 茶詞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황정견의 차사는 12首로 적지만, 송대 차문화를 詞라는 문학 형식을 통해 사의 영역을 넓히고 아울러 詞體의 발전에 새로움을 가져다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을 밝혔다.

11) 侯傑, 〈黃庭堅與雙井茶〉, ≪農業考古≫ 第4期, 1994.
12) 余吉生, 〈"原是分寧一茶客"—黃庭堅與他的詠茶作品〉, ≪名作欣賞≫ 第14期, 2009.
13) 梅俊道, 〈黃庭堅的詠茶詩〉, ≪農業考古≫ 第4期, 1995.
14) 嚴輝, 〈黃庭堅詠茶詩的禪茶意境賞析〉, ≪時代文學≫ 第2期, 2010.
張曉怡, 〈黃庭堅詠茶詩的禪學意蘊〉, ≪石家莊鐵道大學學報≫ 第2期, 2021.
15) 李精耕·楊穩, 〈試論黃庭堅詩中的"茶""香"情結〉, ≪農業考古≫ 第5期, 2018.
16) 施由明, 〈論茶與黃庭堅的人生情懷〉, ≪農業考古≫ 第5期, 2010.
雷徽, 〈黃庭堅涉茶詩中的生活雅趣〉, ≪中國韻文學刊≫ 第2期, 2018.
雷徽, 〈黃庭堅飮茶人生的文學闡釋〉, ≪牡丹江大學學報≫ 第7期, 2020.
17) 張承鳳, 〈黃庭堅筆下的黔州茶道〉, ≪中華文化論壇≫ 第10期, 2016.
18) 임진호, 〈山谷 黃庭堅 茶詞의 문학적 접근〉, ≪차문화·산업학≫ 제29집, 2015.

www.kci.go.kr

지금까지 황정견의 차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중국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각도에서 그의 차시를 다루었으나 황정견의 차시가 가진 풍부한 뜻에 비해 분석 내용이 다소 단편적이고 소략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황정견의 차시를 연구하여 그의 차시에 담긴 문학적 성취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황정견의 일생과 차의 관계

황정견(1045~1105)은 북송 시대 洪州 分寧(지금의 江西省 修水縣) 사람이다. 자는 魯直이고, 호는 山谷道人이며, 만년에는 호를 涪翁으로 썼다. 그는 張耒, 晁補之, 秦觀과 함께 蘇門四學士의 한 사람이고, 蘇軾과 더불어 蘇·黃이라 부를 만큼 詩名이 높았다. 詩學에 있어서 황정견은 "脫胎換骨, 點鐵成金" 등을 주장하였고, 송나라 시단의 혁신을 꾀하여 江西詩派의 문을 열었다. 황정견은 일찍이 진사에 합격하여 벼슬을 하였으나 당시 신·구파 간 치열한 정치적 투쟁으로 그의 관직 생활은 평탄하지 못하였고, 여러 지방을 전전했으며, 거기서 일생을 마치게 되는 불운한 삶을 살았다. 이러한 그의 인생에 벗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차였다.

황정견의 일생은 차와 시종일관 같이 있었다고 할 만큼 차와 관련이 깊다. 그는 차의 고장인 분녕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차나무나 여러 가지 茶事 활동을 보고 듣고 자랐으므로 차에 익숙하였고, 飮茶 생활이 습관이 되었다. 20대 초반에 황정견이 벼슬할 당시에 재상으로 있던 富弼은 우스갯소리로 그를 보고 “分寧一茶客(분녕의 첫째가는 차 손님)”[19]이라고 평했다. 부필은 다방면에 재주가 뛰어난 황정견을 좋아하지 않았고, 차를 마시는 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부필의 평이 편파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황정견과 차의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내며 그가 진

19) ≪朱子語類≫ 권130: “黃某如何? 原來只是分寧一茶客.”

www.kci.go.kr

정한 '茶客'임을 말한 셈이다. 그는 단순히 차만 마신 것이 아니라 손수 차나무를 심고, 차를 따고, 차를 갈고, 차를 끓이고, 茶道에 정통하여 차 향기가 가득한 환경에서 성장했기에 차와 떨어질 수 없는 인연이었다.[20]

황정견은 차를 매개로 차시를 짓는 것도 좋아하여 英宗 治平 3년(1066, 21세)에 〈次韻叔父台源歌〉를 짓기 시작하여 徽宗 崇宁 4년(1105, 61세)에 〈乞鍾乳於曾公袞〉을 짓기까지 평생 차시를 창작하며 살았다.

황정견은 과거 급제 이후 汝州 葉縣에서 벼슬살이를 시작하였는데, 처음에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관직 생활의 억압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답답한 마음에 관직을 그만두고 차를 가지고 시장에 팔 생각까지 할 정도로[21] 차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熙寧 5년(1072)에 수도인 京師로 올라와 國子監教授로 지내면서 비교적 생활이 안정되었다. 이 시기는 그의 부인 孫氏가 결혼한 지 9년 만에 세상을 떠난 것 외에는 인생의 큰 타격 없이 대체로 평탄하게 지냈다. 초년(1065~1076)에 지은 황정견의 차시는 15수 정도 되는데, 주로 문인들과 차를 매개로 교류하거나 차를 즐기는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 가령, "찻사발엔 종종 달여낸 용산의 백차 있으나, 술잔엔 약하의 황주를 담기가 어렵네."[22]는 韓正의 집에 국화가 만개했을 때 맛좋은 술을 함께 마신 정경을 주제로 하여 술과 차를 대비한 것이고, "잠시 차를 달이고 구기와 국화 잎을 끓여서 육우의 ≪茶經≫과 더불어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자 하네."[23]에서는 음차의 즐거움을 표현했다.

황정견의 차시 창작은 인생의 기복 변화가 가장 심했던 중년 시기(1077~1099)에 대부분 이루어져서 이때 지은 차시가 전체 차시의 70%를 차지하며, 80수 가까이 된다. 이 시기의 차시는 茶事 활동 및 그의 인생 기복에 대한 정회와 담담한 심경이 반영되었다. 황정견은 중년에 병으로 인해

20) 余悅, 〈黃庭堅與中國茶文化〉, ≪中國書法≫ 第14期, 2016, 156-157頁.
21) 雷徽, 〈黃庭堅飮茶人生的文學闡釋〉, ≪牡丹江大學學報≫ 第7期, 2020, 30-33頁.
22) 〈次韻伯氏戲贈韓正翁菊花開時家有美酒〉: "茶甌屢煮龍山白, 酒椀希逢若下黃."
23) 〈七臺溪〉: "聊欲烹茶羹杞菊, 身如桑苧與天隨.", 桑苧은 桑苧經이며 육우의 ≪茶經≫을 의미한다.

www.kci.go.kr

술을 끊으면서 차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는데, 1079년에 쓴 〈見二十弟倡和花字漫興五首〉 중 其一을 보면,

落絮遊絲三月候, 버들가지 실처럼 흩날리는 3월에
風吹雨洗一城花. 비바람 불어 성안의 꽃들 모두 씻겼네.
未知東郭清明酒, 동쪽 성벽의 청명주 맛 아직 모르지만
何似西窗穀雨茶.[24] 어찌 서쪽 창가의 곡우차에 비기랴!

시인은 봄의 풍광을 생기있게 묘사한 가운데 동쪽의 청명주와 서쪽의 곡우차를 대비시켜 차가 술보다 낫다고 했다. 황정견은 그의 나이 40이었을 때 손수 술을 끊겠다는 내용의 발원문[25]을 쓴 이후로 20여 년간 술 대신 차만 마실 정도로 평생 차를 애호하며 살았다. 그의 나이 60이 다 되어갈 즈음에 폄적지인 戎州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친척들을 방문할 때도 반갑다고 권한 수백 잔의 술을 마다하고 차를 대신 마실[26] 정도로 그에게 있어 차는 포기할 수 없는 필수품이었다.

그리고 소식, 구양수 등과 서신 왕래한 것도 이 시기인데, 이들과의 교류는 그의 중년 시기 차시의 중요한 소재였다. 특히, 1086년에서 1087년 사이에 창작한 차시가 18수로 최고봉이었고, 이 1년간의 차시가 전체 청년 시기의 차시보다 더 많았다.[27] 그러나 1089년에서 1098년까지 약 10년간 차시 창작이 중단되었다. 외숙부인 李常과 장인 孫覺, 그리고 모친이 연이어 사망한 데다 실록 편찬의 일[28]과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

24) 穀雨茶: 4월 20일경 穀雨를 중심으로, 곡우 전에 차를 따서 만든 차를 '雨前茶'라 한다. 곡우 절기에 딴 차는 '곡우차'라 하고, 최상품으로 삼는다.

25) 胡仔, 〈山谷上〉, ≪漁隱叢話·後集≫ 권31: "今日對佛發大誓, 願從今日盡未來世, 不復婬欲, 飮酒, 食肉……."

26) 〈新喻道中寄元明用觴字韵〉: "中年畏病不擧酒, 孤負東來數百觴."

27) 楊穩, 〈蘇軾和黃庭堅茶詩研究〉, 碩士學位論文, 南昌大學, 2018, 9-10頁.

28) 황정견이 元祐 연간(1086~1094)에 편찬한 神宗 실록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죄명으로 유배되어 昭聖 2년(1095, 51세)에 涪州 別駕, 黔州 安置의 조

www.kci.go.kr

고 章惇、蔡卞에게 보복당하여 여러 차례 폄적되었고, 黔州(지금의 四川 彭水)로 안치되었다. 폄적된 후 황정견의 생계가 매우 곤란해서 심지어 스스로 집을 지었고, 농사지을 땅도 없었다. 동시에 친척들도 세상을 떠나 마음이 비통하였고, 벼슬살이는 실의의 연속이었다. 당시 그의 시 작품은 매우 적었는데, 차와 관련된 시는 없었으며,[29] 대신 〈踏莎行〉과 〈阮郎歸〉, 두 수의 茶詞를 지었다.

변경 지역인 사천은 옛날부터 차의 생산지였다. 그는 차나무가 있는 깊은 산속에서 생활했으므로 이른 봄에 찻잎이 새로 돋아나는 것도 보았고, 찻잎의 종류나 採茶, 制茶에도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차를 따는 차 농부의 힘든 생활을 직접적으로 보았다. 〈踏莎行〉에 차 싹을 빨리 틔우기 위해 開茶 의식의 모습을 "畵鼓는 봄을 재촉한다"로 묘사했고, "蠻歌를 부르며 차밭에 밥을 나른다네"라는 구절은 서남부 지역의 소수민족 사람들이 민가를 부르며 차밭에 나가 밥을 나르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며, "작은 차나무 잎을 따고 나면 큰 차나무 잎을 따는데, 큰 차나무는 閩溪(武夷山)만한 것이 없다네."[30]라고 묘사한 부분에서 남쪽 지방의 찻잎에는 소엽종뿐만 아니라 대엽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정견은 이 지역에 머물면서 차농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차 농부의 힘들고 바쁜 생활을 이해했기에 "黔中은 복사꽃과 오얏꽃 향기 물씬한데, 차 따는 이의 손은 바쁘기만 하네. 백색의 月團과 犀胯는 원형과 방형을 다투고, 研膏는 불에 덖으면 향기가 난다네. 푸른 대나무 껍질에 싸서 붉은색 주머니에 담네."[31]라고 하며 차 농부의 고된 삶과 차를 제조하는 모습을 세세하게 사에 담았다.

1099년에 城南으로 옮긴 황정견은 심정이 호전되어 시도 다시 짓기 시

치를 당했다가 다시 戎州로 안치되었다. 이 6년간이 그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다. (오태석, ≪黃庭堅詩研究≫,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91, 82쪽)

29) 雷徽, 앞의 논문, 30-33頁.

30) 〈踏莎行〉: "畵鼓催春, 蠻歌走餉.……低株摘盡到高株, 高株別是閩溪樣."

31) 〈阮郎歸〉: "黔中桃李可尋芳, 摘茶人自忙, 月團犀胯鬬圓方, 研膏入焙香, 青箬裹, 絳紗囊."(임진호, 〈山谷 黃庭堅 茶詞의 문학적 접근〉, ≪차문화·산업학≫ 제29집, 2015, 24쪽)

www.kci.go.kr

작하였는데, 만년에 지은 그의 차시는 20수 가까이 된다. 황정견의 평탄한 삶도 잠시, 만년(1100~1105)에 그는 다시금 정치적 박해에 시달려서 1104(60세)년에 인적이 드문 宜州(지금의 廣西 宜山)로 폄적되었다. 당시 그의 형 黃大臨은 황정견의 처소를 찾아가 함께 새해를 보내고, 떠나기 전날 밤에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서로 옛이야기를 하였는데, 황정견은 이날 밤 새도록 잠을 못 이루었다. 그는 이별의 시를 썼는데, 〈宜阳别元明用觞字韵〉 중 일부를 보면,

千林風雨鶯求友, 온 숲에 비바람 몰아치는데 앵무새는 짝을 구하고
萬裏雲天雁斷行. 만 리 구름 가득 낀 하늘엔 기러기 행렬 끊어지는구나.
別夜不眠聽鼠齧, 이별을 앞두고 잠 못 이뤄 쥐들의 사각 소리 들리는 건
非關春茗攪枯腸. 봄 차 마셔서 메마른 창자 쓰린 때문만은 아니라네.[32]

앵무새도 오히려 짝을 구하는데, 자신은 다시 형제와 이별해야 하는 아픈 심정을 드러냈다. 이 시는 황정견이 죽기 1년 전에 쓴 것으로 잠 못 드는 이유가 차를 마신 탓도 있지만, 기러기 떼 흩어지듯이 노년까지 귀양살이로 이별해야 하는 작가의 슬픔을 내포하며 情景交融의 형상을 그려낸 것이다. 황정견은 살아 있는 동안 차시 장착에 힘을 기울였고, 심지어 세상을 떠나는 해에도 차시를 두 수 지었다.[33] 그의 일생은 줄곧 차와 함께였고, 차는 그의 가족이나 지인 못지않게 황정견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

Ⅲ. 황정견 차시의 체제

현존하는 황정견의 차시는 摘句 39首를 포함하여 모두 127首[34] 정도

32) 오태석, 앞의 책, 99쪽 인용.
33) 楊穩, 앞의 논문, 11頁.
34) 錢時霖·姚國坤·高菊兒 編, ≪曆代茶詩集成·宋金卷≫, 上海文化出版社, 2016,

www.kci.go.kr

되는데,[35] 적구를 제외한 그의 차시를 체제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체제		시 제목	합계
古詩		〈以團茶洮州綠石硯贈無咎文潛〉, 〈再荅冕仲〉, 〈戲答歐陽誠發奉議謝余送茶歌〉, 〈戲荅陳元輿〉, 〈次韻感春五首〉 중 其五, 〈奉謝劉景文送團茶〉 〈碾建溪第一奉邀徐天隱奉議并效建除體〉, 〈以小團龍及半挺贈無咎并詩用前韻為戲〉, 〈鄒松滋寄苦竹泉橙麴蓮子湯三首〉 중 其一, 〈謝送碾壑源揀芽〉, 〈答黃冕仲索煎雙井并簡揚休〉 〈博士王揚休碾密雲龍同事十三人飲之戲作〉.	12
4言詩		〈歸宗茶堂森明軒頌〉.	1
6言詩		〈了了庵頌〉, 〈送慧林明茶頭頌〉.	2
절구	5言	〈以香燭團茶琉璃獻花碗供布袋和尚頌〉2首, 〈𠀋字頌〉.	3
	7言	〈戲答荊州王充道烹茶〉四首, 〈題太和南塔寺壁〉, 〈見二十弟倡和花字漫興〉五首, 〈催公靜碾茶〉, 〈今歲官茶極妙而難爲賞音者戲作兩詩用前韻〉 2首, 〈奉同六舅尚書詠茶碾煎烹〉三首, 〈公益嘗茶〉. 〈謝公擇舅分賜茶〉三首, 〈又戲爲雙井解嘲〉, 〈答許覺之惠桂花椰子茶盂〉二首, 〈以梅饋晁深道戲贈二首〉 중 其一, 〈以潞公所惠揀芽送公擇次舊韻〉, 〈公擇用前韻嘲戲雙井〉, 〈送張子列茶〉, 〈觀化十五首〉 중 其十, 〈奉同公擇作揀芽詠〉, 〈雜詩七首〉 중 其五, 〈叔父給事挽詞十首〉 중 其八, 〈吏部蘇尚書右選胡侍郎皆和鄙句次韻道謝〉, 〈同謝公定攜書浴室院汶師置飯作此〉, 〈謝陳正字送荔支三首〉 중 其二,	34

873-892頁.

35) 황정견의 차시를 茶 및 茶具에 관한 시 124수 외에 넓은 의미로 차를 권하는 시 3수, 詩題나 詩序, 詩注에서 차를 언급한 것 4수, 茶馬交易의 업적을 이룬 黃廉(1027~1092)을 기리는 挽詞 1수까지 모두 132수로 보기도 하고(雷徽, 앞의 논문, 30-33頁), 涉茶詩 110여 수, 詠茶詩 30여 수로 보기도 한다.(李精耕·楊穩, 〈試論黃庭堅詩中的"茶""香"情結〉, ≪農業考古≫ 第5期, 2018, 68頁)

www.kci.go.kr

체제		시 제목	합계
율시	5言	〈以椰子茶瓶寄德孺〉二首, 〈和知命招晁道夫叔姪〉, 〈寄新茶與南禪師〉, 〈題默軒和遵老〉, 〈與胡彦明處道飮融師竹軒〉, 〈次韻子瞻題無咎所得與可竹二首粥字韻戲嘲無咎人字韻詠竹〉 중 其一, 〈送莫郎中致仕歸湖州〉 〈次韻劉景文登鄴王台見思五首〉 중 其四, 〈奉和文潛贈無咎篇末多見及以既見君子雲胡不喜爲韻八首〉 중 其三, 〈謝曹子方惠二物二首〉 중 其二, 〈信中遠來相訪且致今歲新茗又枉任道寄佳篇複次韻呈信中兼簡任道〉.	12
	7言	〈雙井茶送子瞻〉, 〈次韻寅庵四首〉 중 其三, 〈省中烹茶懷子瞻用前韻〉, 〈以雙井茶送孔常父〉, 〈以雙井茶送孔常父〉, 〈戲贈曹子方家鳳兒〉, 〈次韻李任道晚飮鎖江亭〉, 〈次韻楊君全送酒〉, 〈次韻奉酬劉景文河上見寄〉, 〈和答子瞻〉, 〈和七兄山蕷湯〉, 〈宜陽別元明用觴字韻〉, 〈南山羅漢贊十六首〉 중 其十六, 〈謝人惠茶〉, 〈癸亥立春日煮茗於石池寺見庚戌中盛二十舅中叔爲縣時題名歎此寺不日而成哀縣學弊而不能複〉, 〈辱粹道兄弟寄書久不作報以長句謝不敏〉, 〈常父答詩有煎點徑須煩綠珠之句複次韻戲答〉, 〈謝王炳之惠茶〉, 〈謝黃從善司業寄惠山泉〉, 〈景珍太博見示舊倡和蒲葵詩因而次韻〉, 〈新喻道中寄元明用觴字韻〉, 〈題息軒〉, 〈題落星寺四首〉 중 其三, 〈贈鄭交〉.	24
합 계			88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황정견의 차시는 고시보다 근체시 형태가 많다. 특히 칠언절구와 칠언율시의 비중이 높아서 그의 전체 차시 중 절반 정도 차지한다. 그는 특히 비서성에서 벼슬하는 동안 칠언시를 많이 지었는데, 〈謝公擇舅分賜茶三首〉, 〈今歲官茶極妙而難爲賞音者戲作兩詩用前韻〉, 〈奉同六舅尚書詠茶碾煎烹三首〉[36]의 連詩는 1086년에 지은 것으로 上平의 '灰'

36) 〈謝公擇舅分賜茶三首〉: 〈奉同六舅尚書詠茶碾煎烹三首〉:

www.kci.go.kr

운자를 사용하여 '來'와 '雷'로 압운을 맞추었다. 또 〈雙井茶送子瞻〉, 〈以雙井茶送孔常父〉, 〈省中烹茶懷子瞻用前韻〉, 〈謝黃從善司業寄惠山泉〉, 〈和答子瞻〉, 〈常父答詩有煎點徑須煩綠珠之句復次韻戲答〉[37] 등은 1087년에 지은 것으로 '魚(書, 如)'운자와 '虞(珠, 湖)'운자를 번갈아 사용하여 모두 같은 운으로 압운했는데, 이 작품들은 지인 및 친인척과 贈茶하고 茶水를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여 화답한 내용이 많았다. 이것을 통해 황정견이 차시의 형식과 체재에도 심혈을 기울여 지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황정견의 차시에 4언시와 6언시가 세 수 있는데, 세 수 모두 頌의 형태로 지었다. 〈歸宗茶堂森明軒頌〉은 한 폭의 대나무 풍광을 묘사하면서 그 자연을 찬양한 작품으로 찻집 이름의 근원이 대나무에서 나온 것임을 암시했다. 〈了了庵頌〉은 '了了庵頌' 이름을 가진 사원(절)에 대한 존경과 관심을 표현한 작품이다. 〈送慧林明茶頭頌〉은 혜림의 熟餠茶에 대해서 찬미한 것이다.

황정견의 차시 중에는 문인과의 교류에 관한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30수 가까이 되는데, 차를 소재로 唱和하거나 차를 주고받은 것에 대한 화답과 그 정감을 표현했다. 가령, 〈雙井茶送子瞻〉, 〈省中烹茶懷子瞻用前韻〉은 蘇軾에게 보내면서 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했고, 〈送王朗〉, 〈謝人惠茶〉, 〈贈李彦深〉 등은 다른 문인에게 차를 선물하고 시를 쓰거나 남에게 차를 받고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쓴 것이다.

外家新賜蒼龍壁, 北焙風煙天上**來**.
明日蓬山破寒月, 先甘和夢聽春**雷**.

37) 〈以雙井茶送孔常父〉:
校經同省並門居, 無日不聞公讀**書**.
故持茗碗澆舌本, 要聽六經如貫**珠**.
心知韻勝舌知腴, 何似寶雲與真**如**.
湯餠作魔應午寢, 慰公渴夢吞江**湖**.
要及新香碾一杯, 不應傳寶到雲**來**.
碎身粉骨方餘味, 莫厭聲喧萬壑**雷**.
〈和答子瞻〉:
一月空回長者車, 報人問疾遣兒**書**.
翰林貽我東南句, 窗間默坐得玄**珠**.
故園溪友膾腹腴, 遠包春茗問何**如**.
玉堂下直長廊靜, 爲君滿意說江**湖**.

www.kci.go.kr

Ⅳ. 황정견 차시의 다양한 내용

황정견은 평생 차를 벗하며, 차시에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그의 고향은 쌍정차의 생산지로 유명하기에 고향과 쌍정차를 찬미한 시를 자주 지었다. 그가 남긴 詩句를 보면,

吾家雙井塘, 우리 고향에 쌍정 연못이 있어
十里秋風香. 십 리에 이르도록 가을바람 향기롭네.
〈贛上食莲有感〉

茶甘酒美汲雙井, 쌍정의 물을 길어 쓰니 차는 달고 술은 맛 좋고
魚肥稻香派百泉. 물고기는 살지고 벼는 향기로워 백천으로 보내네.
〈次韵叔父台源歌〉

家山鷹爪是小草, 우리 고향의 鷹爪(쌍정차)는 어린싹으로
敢與好賜雲龍同. 조정에서 하사하신 雲龍과 똑같이 좋은 것이네.
〈答黃冕仲索煎雙井並簡揚休〉

我家江南摘雲腴, 내 고향 강남에서 따낸 구름 머금은 찻잎을
落磑霏霏雪不如. 맷돌에 가니 부슬부슬 눈보다 더 곱네.
〈雙井茶送子瞻〉

황정견은 고향인 쌍정촌의 물이 매우 감미롭고 향기로워 차를 끓이거나 술을 담아도 맛나고, 동식물은 그 물을 먹어서 잘 자란다고 묘사했다. 또 수수현 쌍정촌에서 생산되는 쌍정차는 황제에게 공납하는 龍鳳團茶 못지 않게 품질이 좋다고 했다. 송대에 쌍정 마을은 이미 푸른 숲이 산야에 가득하고, 집집마다 차가 있었는데, 좋은 것은 '白毛'라고 하여 찻잎 모양이 흰 수염 같고, 색은 옥빛이며 맛이 뛰어났다. 그래서 '白茶', '龍須', '雲腴', '鳳爪', '雪芽'라고도 불렀다.[38] ≪宋史≫에서는 동남쪽에서 생산되는 쌍정

www.kci.go.kr

차를 '絶品'이라 평했다.[39] 구양수의 ≪歸田錄≫에도 洪州의 쌍정 백차가 점차 성행하여 日注茶보다 품질이 월등히 뛰어나 엽차 중 으뜸(草茶第一)[40]이라고 했다. 몇 개의 예문을 통해 홍주 쌍정차의 위상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녕의 대표적인 쌍정차가 황정견에 의해 유명해지게 되었음을[41] 알 수 있다. 특히 황정견은 쌍정차가 나는 고향에서 자랐으므로 쌍정차를 제재로 한 시가 〈以雙井茶送孔常父〉, 〈答黃冕仲索煎雙井並簡揚休〉 등 5수나 되는데. 이 또한 북송의 다른 시인과 구별되는 황정견 차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쌍정차는 고향의 진품이자 향토의 맛이었고, 시인에게 있어 정겨움과 그리움의 상징이었다.

두 번째, 황정견의 차시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인들과 차를 매개로 贈答詩를 짓거나 唱和한 작품이다. 그는 벗에게 종종 차를 보내거나 차를 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시를 지었는데, 〈以團茶洮州綠石硯贈無咎文潛〉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晁子智囊可以括四海, 晁補之[42]는 지혜로워 온 세상을 포용할 수 있고,
張子筆端可以回萬牛. 張耒[43]는 필력으로 만 마리의 소도 끌어 되돌릴 수 있네.
自我得二士, 내 두 선비를 얻어
意氣傾九州. 서로 뜻이 맞아 나랏일에 마음을 쏟네.
... ...
晁無咎, 조무구여!
贈君越侯所貢蒼玉璧, 그대에게 월나라 후가 바친 푸른 옥을 드리니
可烹玉塵試春色. 옥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봄의 향기 맛볼 수 있다네.

38) 閔正國, 〈雙井茶與黃庭堅的詠茶詩〉, ≪農業考古≫ 第2期, 1991. 164頁.
39) ≪宋史·食貨志≫: "茶產於東南者, ……其品遠在日注上, 隆興之黃隆、雙井, 皆絕品也."
40) 歐陽修, ≪歸田録≫ 卷上: "自景祐(1034~1037)以後, 洪州雙井白茶漸盛, …… 遂爲草茶第一."
41) ≪清波雜志≫ 권3: "雙井因山谷而重,"
42) 晁補之: 字가 無咎이다.
43) 張耒: 字가 文潛이다.

www.kci.go.kr

澆君胷中過秦論, 그대 가슴속의 〈過秦論〉[44]에 뿌려져서
斟酌古今來活國, 고금을 품평하며 나라를 살려내리라.

이 시는 長短句의 형태로 이루어진 古詩이고, 황정견과 더불어 蘇門四學士인 조보지와 장뢰에게 각각 차와 벼루를 선물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부분에 조보지의 지혜와 장뢰의 문필력을 칭송하며 그들과의 우정을 나타냈다. 이어서 조보지에게 차를 보내며 가의가 진나라의 과오를 비판했듯 논리적인 필치로 지혜가 담긴 문장을 지을 것을 희망한 것이다. 술로 가슴속의 울분이나 분노를 끼얹는다는 상투적인 전고를 쓰지 않고, 차를 매개로 전고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뜻이 달라졌다. 황정견은 선물을 통해 우정을 돈독히 하고 벗들을 칭송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또 다른 문인과 교류한 시 〈以雙井茶送孔常父〉의 일부를 보면,

校經同省並門居, 교서랑으로 함께 근무하고 당직을 쓰니
無日不聞公讀書. 공의 책 읽는 소리 하루도 듣지 않는 날이 없다네.
故持茗椀澆舌本, 찻잔을 가져다 입을 적셨으니
要聽六經如貫珠. 구슬 꿰듯 둥글고 매끄러운 육경 소리 들리겠네.

이 시는 황정견이 元祐 연간에 비서성의 著作佐郎으로 근무하면서 孔武仲에게 고향의 차를 선물하며 쓴 것인데, 공무중이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으면 훨씬 듣기 좋을 것이라 상상했다. 〈謝人惠茶〉를 보면,

一規蒼玉琢蜿蜒,[45] 한 덩이의 푸른 옥 쪼개니 구불구불한 잎으로 펴지고
藉有佳人錦段鮮. 佳人 덕에 아름다운 문양 선명해졌네.
莫笑持歸淮海去, 淮海로 가지고 가는 나를 비웃지 마시게,
爲君重試大明泉. 그대 위해 大明泉 물로 다시 맛보리라.

44) 〈過秦論〉: 賈誼가 秦 왕조의 과오를 비판하여 쓴 것으로,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가혹한 형벌과 포악무도한 정치로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45) 蒼玉: 團茶를 의미한다.

www.kci.go.kr

이 시는 차에 대한 찬사와 우정을 표현한 것이다. 1, 2구는 차의 형태와 茶湯 위의 문양을 시각적으로 묘사했다. 團茶를 쪼개어 구불구불 긴 찻잎이 펴지는 상황과 말차 위에 문양을 그려 넣은 茶百戱[46]를 통해 차를 만드는 사람에 대해 찬사를 표했다. 이어서 친구에게 대명천의 물로 더 나은 차를 맛볼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도 차를 통한 작가의 우정을 읽을 수 있다.

세 번째, 황정견은 차시에 茶事 활동을 묘사하면서 다양한 표현 기교를 사용하여 새로움과 변화를 주었다. 강서시파의 우두머리였던 그는 시 창작에 以故爲新을 추구했는데, 차시에도 어김없이 그의 문학적 특징이 드러났다.

우선, 작가는 천하의 名泉을 두루 다니면서 물에 대해 묘사했다. 앞에서 말한 〈謝人惠茶〉의 '大明泉' 역시 천하의 第五泉[47]에 속한다. 물에 대해 황정견이 묘사한 시구절을 나열해 보면,

① 北焙碾玄璧, 북배의 검푸른 옥색 차(團茶)를 갈아
谷簾煮甘露. 곡렴천의 감로수로 차를 끓이네.[48]

〈和荅外舅孫莘老〉

② 巴人漫說蝦蟆培,[49] 蜀人이 하마배 물로 재배한 것은 말할 필요 없으니
試裹春芽來就煎. 봄 차를 가져와 끓여 먹어보라 하네.

〈鄒松滋寄苦竹泉橙麴蓮子湯〉

46) 茶百戱: 송나라 때 차의 분말과 끓인 물의 반응을 이용해 찻잔에 禽獸나 蟲魚, 花草와 같은 각종 문양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김성수, 앞의 논문, 93頁)

47) 大明泉은 揚州 大明寺의 물로 唐代 張又新은 品水 7품 중 대명천은 다섯 번째라고 했다. (≪山谷外集詩注≫ 권15)

48) 北焙: 당시 官焙의 명차인 建溪茶를 말한다. 谷簾: 庐山 康王 계곡의 폭포를 말한다. 당대 장우신은 이 물을 1등급으로 매겼다. (张又新, ≪煎茶水记≫)

49) 蝦蟆: '蝦蟆碚'로 호북성에 있으며, 이곳의 물맛이 좋아 육우는 천하의 네 번째로 등급을 매겼다. (육유 저, 이치수·김예주 역, ≪입촉기≫,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435쪽)

www.kci.go.kr

③ 金瓶煮山腴,[50] 금병에 산속의 물을 끓이니 비옥하여
茗碗不暇攻. (차에 기름기가 많아) 찻잔에 튀기지 않네.
〈玉照泉〉

④ 挽蔬夜雨畦, 밤비 내린 밭두렁에 채소를 들고
煮茗寒泉井. 차가운 우물 속 샘물로 차를 끓이네.
〈次韻張詢齊中晚春〉

⑤ 井寒茶鼎甘, 차가운 우물로 끓인 솥의 찻물은 달고,
竹密午陰好. 대나무 우거지니 한낮의 그늘이 좋구나.
〈與胡彥明處道飮融師竹軒〉

①과 ②는 谷簾泉과 蝦蟇泉을 언급하여 물맛이 좋음을 나타냈다. ③, ④, ⑤는 산속의 물과 우물물로 차를 끓인 것으로 보아 작가가 은거생활 및 전원생활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대나무숲이 있는 전원에서 우물가의 맑은 샘물로 차를 끓이는 장면과 밤에 비가 오는 중에 채소를 들고 물을 끓이는 장면에서 자연과 어우러져 검소하게 생활을 한 작가의 일면을 볼 수 있다. 황정견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로 일상다반사인 음차 생활을 묘사하여 제재의 폭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詩句가 정교하여 읽을수록 정취가 느껴진다.

황정견은 말차를 만들기 위한 碾茶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요령을 시에 묘사했다. 〈同六舅尚書詠茶碾煎烹〉 중 其一을 보면, 奉

要及新香碾一盃, 신선한 향미를 얻는 요령은 차를 가는 데에 있으니
不應傳寶到雲來. 귀한 것을 전수함에 구름 흘러가듯 해서는 안 되리.
碎身粉骨方餘味, 산산이 부서지고 가루 되어야 바야흐로 맛이 감도니
莫厭聲喧萬壑雷. 수많은 골짜기에 우렛소리 시끄러워도 싫다 하지 말라.

50) 물을 평할 때, 산의 물이 제일이고, 강물은 그다음이며, 우물물이 아래라고 했다. (陸羽, ≪茶经≫ 卷下: “其水, 用山水上, 江水中, 井水下”)

www.kci.go.kr

이 시는 황정견이 여섯 번째 외삼촌에게 보내며 맷돌에 차를 가는 요령과 비결을 묘사한 것이다. 신선한 찻잎을 갈아 말차로 되기까지 정성을 들여야 차 고유의 풍미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차를 가는 소리가 시끄러워도 감수해야 한다고 익살적으로 표현했다. 오늘날 물을 부어 우려 먹는 泡茶法과 달리 송대는 차를 가루 내어 먹는 點茶法이 성행했는데, 碾茶는 황정견이 이미 묘사했듯이 부드럽고 하얗게 갈거나 옥가루처럼 만드는 것[51]이 비결이었다.

황정견은 차가 끓을 때 올라오는 기포(물방울)의 모습을 여러 차례 묘사했다. 예를 들면,

思公煮茗共湯鼎, 그대 그리워 차를 달이니 차 솥의 물이 함께 끓어오르고,
蚯蚓竅生魚眼珠. 구불구불한 찻잎 사이 뽀글뽀글 구슬방울이 생기네.
〈省中烹茶懷子瞻用前韻〉

이 시는 蘇軾을 회상함과 동시에 차가 끓으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매우 신선하게 표현했다. 찻잎이 탕 속에서 지렁이처럼 구불구불 펴지는 가운데 기포가 올라오는 모습을 '蚯蚓竅'와 '魚眼珠'로 재미나고 新奇하게 묘사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龍焙東風魚眼湯,[52] 차 달이니 동풍이 불어와 뽀글뽀글 물방울 끓어오르는
個中即是白雲鄉. 여기가 바로 신선이 사는 곳이네.
〈戲答荊州王充道烹茶四首〉 중 其四

風爐小鼎不須催, 풍로 위 작은 솥 빨리 끓으라 재촉할 필요 없으니

51) 〈雙井茶送子瞻〉: "맷돌에 가니 부슬부슬 눈보다 더 곱다(落磑霏霏雪不如)", 〈催公靜碾茶〉: "급히 시냇가로 아이를 보내어 碾茶하니 옥가루가 되었네(急遣溪童碾玉尘)"

52) 龍焙: 용봉차를 만들었던 북원에서 만든 차. 용봉의 거푸집을 설치한 어원에서 만든 차.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上, 서울: 이른아침, 2012, 223쪽)

www.kci.go.kr

魚眼長隨蟹眼來. 동글동글 큰 물방울은 뽀글뽀글 작은 물방울을 늘 따라 오네.

〈奉同六舅尚書詠茶碾煎烹〉중 其二

물이 끓어 탕 속의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현상을 살아 있는 생물인 '蟹眼(게 눈)'과 '魚眼(물고기 눈)'으로 비유했다. 일상적인 사물을 사용했지만, 표현의 독특함이 돋보인다. 또 〈謝黃從善司業寄惠山泉〉의 일부를 보면,

急呼烹鼎供茗事, 다급히 솥에 물을 끓여 차를 만들어 드리고,
晴江急雨看跳珠. 맑은 강물 위 소나기가 구슬처럼 튕기며 구르는 것을 보네.

이 시구절은 맑고 차가운 혜산천의 물을 급히 끓여내는 모습과 맑은 강물에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의 모습을 묘하게 연결했다. 탕에 방울방울 떠오르는 기포와 빗줄기가 강물 위로 구슬같이 튕기며 구르는 모습은 거의 유사한데, 차의 기예와 시인의 문학적 재능을 함께 결합하여 배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 황정견의 차시에는 찻잎을 비유한 것들도 있는데, 송대는 대부분 단차를 마셨기 때문에 그의 차시에 北苑龍團을 묘사한 것이 적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던 龍焙나 北焙는 단차 형태로 福建省의 建溪에서 생산되어 건계차라고도 하는데, 황정견은 이런 차를 蒼玉, 蒼璧, 玄圭 등으로 비유하길 좋아했다. 푸르고 영롱한 빛 감도는 단차는 옥처럼 진귀하여 구하기 어려워 圭, 玉, 璧 등으로 표현한 것이다. 단차를 제외하고 황정견이 매우 좋아했던 쌍정차는 엽차로 '鷹爪'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다. 가령, "茶如鷹爪拳"과 "更煎雙井蒼鷹爪"[53]에서 찻잎을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챌 때

53) 〈次韻感春五首〉 중 其五: "찻잎은 매 발톱처럼 굽어있고", 〈戲荅荊州王充道烹茶四首〉: "매 발톱 같은 푸른 쌍정차 다시 끓이네."

www.kci.go.kr

의 동작으로 비유한 것이다.

이렇듯 황정견은 차시에 기이하고 새로운 글자를 운용하여 시의 깊이를 더하고, 차의 형상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때때로 그가 시에서 표현한 수법이 기묘하여 읽기가 껄끄럽다고들 하지만,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시적 풍격은 사물에 대한 본질을 꿰뚫는 안목으로 담담하게 묘사된다.[54] 즉, 차의 맑고 깨끗한 속성을 취하지만 그 율격과 표현 방법이 아름답고 기묘하다. 그래서 그의 차시에 쓰인 字句는 생경하지만, 그 속에는 의미심장함과 더불어 사물에 대한 관찰력, 문학 창작에 대한 그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Ⅴ. 황정견 차시의 심미적 인생관

송대는 사상적으로 唐代에 이미 형성된 유·불·도의 삼교 융합이 유행하던 시기였다. 특히 사대부들은 참선을 배우고 선종과 밀접한 교유를 유지하며 선문화를 형성했는데, 선종 사찰에서 수행의 한 방법으로 행해지던 음차 풍속은 송대에 성행하여 황제에서 사대부 문인, 민간에 이르기까지 차를 마시지 않는 계층이 없을 정도로 차는 필수품으로 인식되었다. 차는 송대 문인들의 고상한 생활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작품 활동에 좋은 소재를 제공해 주었다. 황정견 역시 자신을 닦는 방편의 하나로 음차 생활을 즐겨 했고, 그것을 시에 담았기에 차시도 북송 시인 중 가장 많이 지었다. 차는 그에게 즐거움을 주고 시적 흥취를 더해 주었는데, 〈觀化十五首〉 중 其十을 보면,

紅羅步障三十里, 붉은빛 고운 꽃 30리에 펼쳐져 있으니
憶得南溪躑躅花. 남쪽 시냇가의 철쭉꽃 떠오르네.
馬上春風吹夢去, 봄바람이 꿈을 날려 버리려 하는데

54) 오태석, 앞의 책, 314쪽.

www.kci.go.kr

依稀人摘雨前茶.　　雨前茶 따는 사람 어렴풋이 보이네.

이 시는 1102년 황정견이 太平州에서 파면된 후 荊州의 집에 있을 때 교외로 산책한 것을 묘사했다. 시인은 봄날에 고운 꽃들이 수십 리에 펼쳐져 있는 광경을 보고 예전에 남쪽 시냇가에 피었던 철쭉꽃의 감흥이 생각나서 꿈에 잠겨 있다가 문득 불어오는 봄바람에 고개 들어 보니 저 멀리 우전차를 따는 사람이 희미하게 보이는 광경을 시에 담았다. 칠언절구이지만, 시구마다 운치있고 청신한 경관이 시인의 붓끝에서 자세히 묘사되어 맑고 청아한 자연을 느끼게 한다. 〈碾建溪第一奉邀徐天隱奉議並效建除體〉의 일부를 보면,

建溪有靈草,　　建溪에 신령스런 풀 있으니
能蛻詩人骨.　　시인의 뼈대로 탈바꿈할 수 있다네.
除草開三徑,[55]　　잡초 제거하여 세 갈래 길을 열고 나서
爲君碾玄月.[56]　　그댈 위해 玄月을 가네.
滿甌泛春風,　　사발 가득 봄바람 떠 있고
詩味生舌牙.　　시의 정취 혀끝에서 생겨나네.
平斗量珠玉,　　주옥같은 문장 고르게 말로 되어
以救風雅渴.[57]　　詩의 목마름을 구하네.

이 시는 飮茶의 오묘함이 시적 흥취에 도움이 됨을 묘사한 것이다. 차는 시인을 환골탈태시키고, 창작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심지어 시적 감흥을 순정하게 하여 ≪詩經≫과 같은 훌륭한 작품을 짓도록 한다는 것이다. 황정견이 좋아한 것은 차의 담담하고 맑은 향만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 된 깊고 우아한 맛(雅味)에 있었다. 복송 시대 유가 학자들은 雅를 숭상하여 雅로 시를 많이 논하고, 中庸의 도를 지켜 자신의 인격 완성을 추

55) 三徑: 정원 안의 세 갈래의 좁은 길. 隱者의 문 안의 뜰.
56) 玄月: 음력 9월의 별칭, 불교에서 오묘한 진리를 비유한다.
57) 風雅: 훌륭한 시문 혹은 ≪詩經≫을 뜻한다.

www.kci.go.kr

구하였다. 이것이 작가에게 돈후하고 온아한 차시를 짓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이 시는 雅의 정신이 반영되어 시의 의미가 오묘하고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다.

황정견의 일생을 동반한 것은 茶뿐만 아니라 禪도 있다. 그의 고향인 洪州 分寧은 차의 생산지였을 뿐만 아니라 南禪 특히 洪州禪의 성지이기도 했다.[58] 이런 독특한 지리적 환경은 작가에게 차와 선이 조화된 작품을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황정견은 성장하면서 승려들과 교유하고 선종에 심취했다. 그래서 그의 차시 작품에는 선과 관련된 것들이 제법 있다. 황정견은 차를 매개로 선을 결합한 차시 짓기를 좋아했는데, 예를 들어 〈題落星寺〉를 보면,

落星開士深結屋, 낙성산 스님이 깊숙한 곳에 절을 짓자
龍閣老翁來賦詩. 龍圖閣 노인이 와서 시를 짓네.[59]
小雨藏山客坐久, 보슬비로 희미해진 산에 나그네는 오랫동안 앉아 있고
長江接天帆到遲. 하늘과 맞닿은 장강에 돛단배는 더디게 당도하네.
宴寢清香與世隔, 편안히 쉬는 이곳의 맑은 향기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畵圖妙絶無人知. 그림이 아주 묘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
蜂房却自開戶劇, 벌집 같은 승방은 제각기 창문이 활짝 열려 있고
處處芬煮藤一枝. 방마다 등나무로 불을 때어 향기로운 차를 끓이네.[60]

세속과 동떨어진 산속 깊숙하게 자리한 낙성사 절에 비가 오는 적막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묘사하고, 승려의 방문이 벌집처럼 열려 있는 곳곳마다 등나무로 차를 끓여 창문 사이로 차 향내가 피어오르는 형상을 그려냈다. 시 전체의 분위기가 맑고 평온하며 담박한 색채를 띠어 '茶禪一味'의 세계가 드러난다. 차의 청아하고 담박한 속성과 선의 청정함과 평담함, 自

58) 張曉怡, 〈黃庭堅詠茶詩的禪學意蘊〉, ≪石家莊鐵道大學學報≫ 第2期, 2021, 86頁.
59) 龍圖閣 노인: 龍圖閣直學士를 지낸 황정견의 외숙 李公擇을 말한다.
60) 김예주, 〈宋代 차문화에 대한 미학적 연구—以茶爲詩1)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138집, 2023, 320쪽 인용)

www.kci.go.kr

悟自覺의 정신적인 특징이 서로 통하고 융합되어 一味를 이루었음을 뜻한다.[61]

황정견은 때때로 출세와 명예를 쫓는 생활이나 관직 생활에 대한 염증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送張子列茶〉를 보면,

齋餘一碗是常珍,[62] 절밥 먹은 후 차 한잔은 항상 진귀하니
味觸色香當幾塵. 색성향미촉법의 세상은 티끌과 같네.
借問深禪長不臥, 짐짓 묻노니 선정에 잠겨 오랫동안 잠들지 않음이
何如官路醉眠人. 벼슬에 취해 깨어나지 못한 사람과 어찌 같은가!

이 시는 張子列에게 차를 보내면서 차로 참선하여 선정에 이르는 상황을 묘사했다. 첫 구절에서 식후에 차를 마시는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절의 가풍을 표현한 것이다. 청정한 계율과 조용한 환경에서 산수 자연의 맑은 정기가 깃든 차를 마시면 혼탁함이 제거되고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준다. 이런 환경에서 맑고 담담한 차를 대하면 생각이 자연히 禪의 경계로 흐르게 되므로, 절에서 차는 참선의 방식으로 종종 사용했다. 3, 4구는 세상의 名利를 쫓아서 벼슬을 구하는 사람과 세속을 초월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와의 비교를 통해 탐욕스럽게 벼슬을 추구하는 길보다 전원생활 속에서 차와 더불어 조용하고 담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 시에 사용된 常珍, 色香, 幾塵 등의 시어는 禪境을 드러냈는데, 억지로 만든 意境이 아니라 禪의 환경과 茶의 작용으로 사람들에게 평온하고 초연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또 〈題息軒〉을 보면,

僧開小檻籠沙界, 스님이 작은 새장 문을 열어 놓으니 사바세계 뒤덮었고,
鬱鬱參天翠竹叢. 울창하게 하늘 높이 솟은 푸른 대나무 한데 모였네.
萬籟參差寫明月, 온갖 소리 여기저기 들리고 밝은 달빛 비치는데

61) 같은 논문, 320쪽.
62) 齋餘: 잿밥, 절의 소밥, 승려가 탁발하여 시주로 받은 밥.

www.kci.go.kr

一家寥落共清風. 홀로 적막하게 맑은 바람 함께 하네
蒲團禪板無人付,[63] 포단과 선판에 기대어 좌선하는 이는 없으나
茶鼎薰爐與客同. 다정과 향로가 나그네와 함께하네.
萬水千山尋祖意,[64] 수많은 산길과 물길에서 祖師가 전한 禪의 뜻을 찾으니
歸來笑殺舊時翁. 돌아와서 오래전 노인의 편협함을 없애고 웃네.

이 시는 자연을 벗 삼아 차를 마시는 가운데 삶에 대한 시인의 인식과 성찰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首聯은 무성하고 우뚝 솟은 대나무 숲 속에 승려가 새장을 열어 새를 자유로이 놓아주는 모습을 묘사했다. 頷聯은 달빛 아래에 한 사람이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는데, 자연이 너무 고요하기에 온갖 소리는 오히려 크게 들린다고 표현했다. 頸聯은 선정에 들기 위해 참선하는 행위는 없으나 茶道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시인의 모습이 담겼다. 공허하고 고요한 가운데 삼매에 빠져드는 것처럼 현실 세계의 번잡함이 없는 자연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평상심이 일어난다. 달빛 아래에서 차를 마시는 이런 상황은 종종 시인의 무한한 상상과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인데, 세상일에 깊이 깨닫게 되는 감정을 달과 차를 빌려서 표출한 것이다. 이어서 尾聯은 수많은 여정을 통해 祖師들이 전한 禪을 찾고자 하지만, 이것은 깨달음에 의한 것이지 옛 노인의 사상이나 경전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7, 8구에서 의미하는 바는 1, 2구의 새가 새장에서 풀려나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인 또한 세속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차처럼 담박하고 초연한 삶을 살고 싶었으리라.

63) 蒲團: 승려가 좌선할 때 쓰는 부들로 둥글게 틀어 만들어서 깔고 앉는 방석.
禪板: 좌선할 때 피로를 덜기 위해 손을 얹거나 몸을 기대는 데 쓰는 판자.
64) 祖意: 祖師 문중의 뜻으로 불립문자를 표방하는 선종의 가치를 뜻한다.

www.kci.go.kr

Ⅵ. 결론

이상으로 황정견의 일생과 차의 관계, 황정견 차시의 체제와 내용, 그리고 그의 차시에 담긴 심미적 인생관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논한 것을 간추려 보면, 먼저 황정견은 차의 고장인 분녕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차나무나 여러 가지 茶事 활동을 보고 듣고 성장하였고, '分寧一茶客'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차에 능숙하였으며, 飮茶 생활이 습관이 되었다.

그는 차를 매개로 시를 짓는 것도 좋아하여 평생 차시를 창작하며 살았다. 그의 차시 창작은 인생의 기복 변화가 가장 심했던 중년 시기에 대부분 이루어져서 이때 지은 것이 전체 차시의 70%를 차지한다.

황정견의 차시 체제를 보면, 摘句 39수를 포함하여 모두 127수 정도 되고 고시보다 근체시 형태가 많다. 특히 칠언절구와 칠언율시의 비중이 높아서 그의 전체 차시 중 절반 정도 차지한다. 그의 차시 중에 문인과 교류한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30수 가까이 된다.

황정견의 차시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문인들과 차를 매개로 贈答하거나 唱和한 것 외에도 쌍정차를 찬미한 시를 많이 지어 황정견에 의해서 이 차가 유명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茶事 활동을 묘사하면서 다양한 표현 기교를 사용하여 새로움과 변화를 주었다. 대표적인 차사 활동으로 물에 관한 내용, 碾茶하는 모습, 茶湯이 끓는 모양, 찻잎과 차를 비유한 것 등이 있는데, 기이하고 새로운 글자를 운용하여 시의 깊이를 더하고, 차의 형상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황정견의 차시에는 유·불·도 삼교 융합이 더해져서 그가 추구하는 인생태도가 반영되었다. 그는 차를 통해 즐거움을 찾고, 시적 흥취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차를 매개로 禪을 결합한 시를 지어 茶禪一味의 세계를 묘사했다. 황정견은 평생 정치적 포부를 실현하는 출세와 세속을 벗어난 은일에 관심을 가졌는데, 차시에 선종의 禪을 표현하면서도 출가하지 않았

www.kci.go.kr

고, 산수 전원에서 한적하게 지내는 은일의 정감을 나타내면서도 결코 속세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속세에 순응하면서도 차의 담백하고 온화한 속성대로 초연한 인생과 담박한 삶을 추구했다.

<참고문헌>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上·下, 서울: 이른아침, 2012.

오태석, ≪황정견시선≫, 서울: 문이재, 2002.

오태석, ≪黃庭堅詩研究≫,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91.

육유 저, 이치수·김예주 역, ≪입촉기≫,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22.

蔡絛, ≪鐵圍山叢談≫, 文淵閣 ≪四庫全書≫.

胡仔, ≪漁隱叢話·後集≫.

黃庭堅 著, 任淵·史容·史李溫 注, ≪山穀詩集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陸羽, ≪茶经≫, 文淵閣 ≪四庫全書≫.

錢時霖·姚國坤·高菊兒 編, ≪曆代茶詩集成·宋金卷≫, 上海: 上海文化出版社, 2016.

≪清波雜志≫, 文淵閣 ≪四庫全書≫.

≪宋史·食貨志≫, 文淵閣 ≪四庫全書≫.

≪朱子語類≫, 文淵閣 ≪四庫全書≫.

김성수, 〈南宋의 曾幾 茶詩 考察〉, ≪中國文學≫ 제105집, 2020.

김예주, 〈宋代 차문화에 대한 미학적 연구—以茶爲詩1)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138집, 2023.

임진호, 〈山谷 黃庭堅 茶詞의 문학적 접근〉, ≪차문화·산업학≫ 제29집, 2015.

雷徽, 〈黃庭堅飮茶人生的文學闡釋〉, ≪牡丹江大學學報≫ 第7期, 2020.

www.kci.go.kr

李精耕·楊穩, 〈試論黃庭堅詩中的“茶”“香”情結〉, ≪農業考古≫ 第5期, 2018.
閔正國, 〈雙井茶與黃庭堅的詠茶詩〉, ≪農業考古≫ 第2期, 1991.
楊穩, 〈蘇軾和黃庭堅茶詩研究〉, 南昌大學碩士學位論文, 2018.
余悅, 〈黃庭堅與中國茶文化〉, ≪中國書法≫ 第14期, 2016.
張曉怡, 〈黃庭堅詠茶詩的禪學意蘊〉, ≪石家莊鐵道大學學報≫ 第2期, 2021.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tea poems of Huang Tingjian, a poet from the Northern Song Dynasty, exploring the author's life, the relationship with tea,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Huang Tingjian's tea poems, and the aesthetic worldview embedded within his tea-related works

Huang Tingjian was born in Fennin, the birthplace of tea, and grew up drinking tea from a young age. He had a strong affinity for tea, evident enough to be referred to as “Fenning Yi Cha Ke” which translates to “a devoted tea drinker from Fenning.” He extensively composed tea poems, showcasing a structure that leaned more towards modern-style poetry rather than ancient poetry. He composed around five poems dedicated to the Shuangjing tea variety. His tea poems encompass diverse themes, predominantly engaging in dialogues between literati and tea. When expressing his thoughts on tea, he employed various literary devices to infuse novelty and change.

Huang Tingjian found joy through tea, evoking poetic inspiration, reflecting his life's attitudes within his tea poems, and intricately combining the essence of Dhyana within his tea-related works, portraying the interconnected world of “Oneness of Dhyana and Tea”.

www.kci.go.kr

Key Words : 북송(Northern Song Dynasty), 황정견(Huang Tingjian), 차시(Tea Poems), 분녕일차객(Fenning Yi Cha Ke), 차선일미(Oneness of Dhyana and Tea)

www.kci.go.kr

www.kci.go.kr